

03. [정답] ㉓

[어휘] 난도 하

어휘 문제이면서도 문학 문제이다.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생애를 서술하는 글은 가전(假傳)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수험생들 많지 않을 것이다.

※ 가전(假傳): [같은 말] 가전체(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傳記)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학 양식).

<오답 피하기>

- ① 평전(評傳): 개인의 일생에 대하여 평론을 곁들여 적은 전기.
- ② 열전(列傳): 1. 여러 사람의 전기(傳記)를 차례로 벌여서 기록한 책. 2. 역사에서, 임금을 제외한 사람들의 전기를 차례로 적어서 벌여 놓은 기전체 기록.
- ④ 실전(實傳): 1. 실제의 전승이나 전기. 2. 어떤 종교의 교의에 관한 전승. 3. 사도들로부터 실제로 전하여 내려옴.

문 4.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어색한 문장은?

- ① 작가는 작품으로 말할 뿐, 그 밖의 것은 모두 **철향(贅言)**에 불과하다.
- ② 한학의 **온축(蘊蓄)**을 문학작품의 장작으로 승화시켰다.
- ③ 습작 활동을 오래도록 한 일은 그의 치밀한 성격울 **야기(惹起)**하였다.
- ④ 귀국한 동생으로 인해 우리 가족의 **단취(團聚)**가 실현되었다.

04. [정답] ㉓

[어휘론-한자어의 의미] 난도 상

한자어의 쓰임이 문맥적으로 옳은지를 묻는 문제다. 익숙지 않은 단어들에 제시되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야기(惹起)하다'는 '일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키다.'의 뜻을 갖는 단어로 '초래(招來)하다'와 함께 부정적인 표현에 쓰인다. 제시된 문장은 부정적 표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야기하다'가 부적절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철향(贅言. 군더더기 철향, 말쑤 언):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 유의어: 군더더기, 군소리, 두말1
- ② 온축(蘊蓄. 쌓을 온, 쌓을 축): 1. 속에 깊이 쌓아 둠. 또는 그런 것. 2. 오랫동안 학식 따위를 많이 쌓음. 또는 그 학식.
- ④ 단취(團聚. 모임 단, 모임 취): 집안 식구나 친한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한자리에 모임.

문 5.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날씨가 내일부터 누그러져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② 내가 유학을 떠날 때, 친구가 소개시켜 준 학교는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다.
- ③ 1반 축구팀은 불안한 수비와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 2반 축구팀에 패배하였다.
- ④ 방송 장비를 휴대한 트럭이 현장에 대기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합니다.

05. [정답] ㉑

[어법] 난도 상

일반적인 문장 구조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는 경우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삼아 살펴보면, '예상되다'는 '~으로, ~고'의 형태를 취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날씨가 내일부터 누그러져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부사어) 예상됩니다. (서술어)

이렇게 되면 주어가 없는 문장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날씨가 ~것으로] 부분을 명사절 형태로 바꿔 [날씨가 ~것이] 형태를 취함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른 사진(포털 '다음'의 국어사전)에서는 "이번 경기를 보면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이 예상된다."와 같은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이로 보아 주술 호응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면 ①도 문제를 안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소개해 준'이라고 고쳐 써야 한다. '~하다'라고 쓸 수 있는 문장을 '~시키다'로 고쳐 쓰는 것은 잘못이다.
- ③ 주술 호응의 문제를 갖고 있다. '수비가 불안하고,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라고 고쳐 쓰는 것이 좋다.
- ④ '휴대하다'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다.'의 뜻을 갖는다. '배, 비행기, 차 따위에 물건을 싣다.'의 뜻을 갖는 '탑재(搭載. 탈 탑, 실을 재)하다'가 활용된 '탑재한'이 적절하다.

문 6. ㉠ ~ ㉣의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春去花猶在 ㉠天晴谷自陰
杜鵑啼白晝 始覺㉡卜居深
- 李仁老, 「山居」 -

(나) 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柳色新
勸君更盡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
- 王維, 「送元二使安西」 -

- ① ㉠: 날이 개다.
- ② ㉡: 사는 곳이 깊다.
- ③ ㉢: 버드나무 빛깔이 새롭다.
- ④ ㉣: 돌아가신 분.

06. [정답] ㉣

[한시 번역] 난도 상

(나) 작품은 2011년도 국가직 7급에 나왔던 것이다. '고인(故人)'은 옛 사람, 여기서는 '옛 벗'을 뜻하고 있다.

(가) 山居(산거) 산에 머물다
春去花猶在(춘거화유재) 봄은 갔어도 꽃은 여전히 피어 있고
天晴谷自陰(천청곡자음) 날씨는 개어도 골짜기는 그늘졌네.
杜鵑啼白晝(두견제백주) 한낮에 두견새 우니
始覺卜居深(시각복거심) 사는 곳이 깊음을 비로소 알겠노라.
* 卜居: 살 만한 곳을 점침. 살 만한 곳을 가려서 삶.

(나) 送元二使安西(송원이사안서): '원이'를 안서 땅에 보내며
渭城朝雨浥輕塵(위성조우읍경진): 위성에 아침 비가 내려, 흙먼지를 적시니
客舍青青柳色新(객사청청류색신): 여관집 푸르디푸른 버들 빛은 더욱 새롭구나.
勸君更盡一盃酒(권군갱진일배주): 그대에게 권하니, 다시 한 잔의 술을 비우시게.
西出陽關無故人(서출양관무고인): 서쪽으로 나가 양관을 벗어나면, 옛 벗은 없을지니.

문 7. ㉠ ~ ㉣에 들어갈 한자 성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그는 고집이 어찌나 센지 한번 결심하면 (㉠)이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은 (㉡)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 아무리 (㉢)한 인물이라도 좋은 동료로 만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	㉡	㉢
① 搖之不動	間於齊楚	蓋世之才
② 搖之不動	看於齊楚	改世之才
③ 擾之不動	間於齊楚	改世之才
④ 擾之不動	看於齊楚	蓋世之才

07. [정답] ㉠

[한자성어] 난도 중

문맥을 잘 보고 적절한 한자 표기를 파악하면 답이 보이는 문제이다.

- ㉠ 搖(흔들릴 요) 之(어조사 지) 不(아닌가 부(아닐 불, 클 비)) 動(움직일 동): 흔들어도 꿈쩍하지 아니함. '곳곳한',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으로 순화. * 擾(어지러울 요)
- ㉡ 間(틈 간) 於(어조사 어) 齊(가지런할 제) 楚(모형 초): 약자가 강자들 틈에 끼어서 괴로움을 겪음을 이르는 말. 중국의 주나라 말엽 등나라가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서 괴로움을 겪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 看(볼 간)
- ㉢ 蓋(덮을 개) 世(세상 세) 之(어조사 지) 才(재주 재): 세상을 뒤덮을 만큼 뛰어난 재주. 또는 그 재주를 가진 사람. * 改(고칠 개)

문 8. ㉠ ~ ㉣의 표제어에 적합한 한자 표기는?

- ㉠ 유세: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님.
- ㉡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 ㉢ 탐본: 비석, 기와, 기물 따위에 새겨진 글씨나 무늬를 종이에 그대로 떠냄.

㉠	㉡	㉢
① 遊說	徂歲	拓本
② 遊說	租稅	搨本
③ 誘說	徂歲	搨本
④ 誘說	租稅	拓本

08. [정답] ②

[적절한 한자] 난도 중

㉠의 예시로 등장한 ‘탁본’을 읽을 줄 알았다면 ㉡나 ㉢ 중에서 답이 됨을 알았을 테고, ‘유세’의 ‘유’가 ‘놀 유(遊)’임을 알면 답이 ㉡임을 명확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遊(놀 유) 說(달랠 세{말씀 설, 기뻐할 열, 벗을 탈})
 * 誘(필 유) 說(달랠 세{말씀 설, 기뻐할 열, 벗을 탈}): 달콤한 말로 꾀.
 ㉡ 租(구실 조) 稅(구실 세)
 * 徂(갈 조) 歲(해 세): 조년3(徂年)(지나간 해).
 ㉢ 榻(걸상 탁) 本(밑 본)
 * 拓(밀칠 탁{주울 척}) 本(밑 본): 비석, 기와, 기물 따위에 새겨진 글씨나 무늬를 종이 에 그대로 떠냄. 또는 그렇게 떠낸 종이.

문 9. 우리말과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라매’와 ‘수라’는 몽고어에서 유입된 말이다.
- ② 모음조화 현상은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 ③ 15세기부터 주격 조사 형태 ‘가’가 나타나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 ④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한글 자모의 명칭과 순서가 나타난다.

09. [정답] ③

[국어사] 난도 하

2016년도 서울시 7급에도 나왔던 주격 조사 문제이다. 주격 조사 ‘가’는 15세기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16세기 중반부터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말’이나 ‘매’ 종류 그리고 ‘타락(駝酪), 수라(水刺)’ 등은 몽고어에서 들어온 말이다.
 ② 15세기에는 모음조화를 철저히 지켰으나 점차 약화되어 현대국어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아래 아(·)’의 소실과 관련이 있다.
 ④ ‘기역, 니은, 디귿’ 등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한글 자모의 명칭과 순서가 나타나고 있다.

문 10. 다음 글에서 ‘신(臣)’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臣)이 부영(傅榮)에게 말하였습니다.
 “수차(水車)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수차를 보았습니까?”
 “지난번 소흥부(紹興府)를 지날 때, 어떤 사람이 호수 언덕에서 수차를 돌려 눈에 물을 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을 적게 들이면서 물을 많이 퍼 올리더군요. 가뭄에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차는 물을 푸는 데만 사용될 뿐이니 배울 것이 못 됩니다.”
 “우리나라는 논이 많은데 자주 가뭄이 들지요. 만약 수차 만드는 법을 배우 우리 백성에게 가르쳐 준다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조금만 수고해 가르쳐 주면, 우리 백성 대대로 큰 이익이 생길 것이요. 그 제작법을 잘 알아보시되 모자란 점이 있으면 뱃사람들에게 물어서 정확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최부, 「표해록」 -

- ① 공리공론(空理空論) ② 실사구시(實事求是)
- ③ 이용후생(利用厚生) ④ 주권재민(主權在民)

10. [정답] ③

[한자성어] 난도 중

실학사상을 떠올리면서 무엇을 답으로 해야 할지 헷갈렸을 수 있는 문제이다. 지문의 내용을 보면 ‘신(臣)’은 실제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차를 만들고 싶어 한다. 이와 관련을 맺는 것은 ‘이용후생’이다.
 ※ 利(이로울 이{리}) 用(쓸 용) 厚(두터울 후) 生(날 생):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함.
 <오답 피하기>
 ① 공리공론(空理空論): 실천이 따르지 아니하는, 헛된 이론이나 논의.
 ②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 공리공론을 떠나서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객관적 학문 태도를 이룬 것으로, 중국 청나라 고증학의 학문 태도에서 볼 수 있다. 조선 시대 실학파의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다.
 ④ 주권재민(主權在民):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문 11. 전화를 사용할 때, 표준 언어 예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니네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 ② 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 ③ 지금 안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 ④ 잘 알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1. [정답] ①

[언어예절] 난도 하

쉬운 문제인 듯하나 이런 문제에서 낭패스러운 일을 당하기 쉽다. 전화가 잘못 걸려온 경우에는 “아니네요(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말한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라고 바로 말하는 것은 전화 건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표현들이다.

문 12. 다음 광고 문안에 포함된 담화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 선풍기는 바람을 차게 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방안에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물건이 와 닿으면 소리가 나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일 년 이내에 고장이 나면 즉시 새 물건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 ① 호소 기능 ② 정보 제공 기능
- ③ 약속 기능 ④ 오락 기능

12. [정답] ④

[언어의 기능] 난도 하

언어의 기능 중 ‘오락 기능’은 나타나지 않는다. 선풍기를 사도록 마음이나 감정 따위를 불러일으키는 호소의 기능, 선풍기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 제공 기능, 고장이 나면 즉시 교환해 준다는 약속 기능 등은 나타난다.

문 13.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욕은 공격성의 표현이자, 말로 하는 폭력이다. 아이가 욕을 배워 친구 앞에서 욕을 하는 것은 어른 세계에 대한 반항이자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표현이다.
 (가) 그들이 집회에서 내뿜는 폭언은 자신들과 기성세대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 짓는 행동 양식이었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그들의 독자성을 가진 집단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였다.
 (나) 그러나 욕은 특수 용어가 아니다. 특수 용어는 개념을 더 정확하게 나타내고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분명하게 한다. 언어 그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욕과 같은 추한 말은 언어를 저하시키고 못쓰게 만든다.
 (다) 1968년 이탈리아에서 학생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 학생들이 귀에 담기에 힘든 폭언을 내뿜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자신들은 규범을 깨뜨릴 것이며 이제 기성세대에, 국가 권력에 따르지 않겠다는 성명이었다. 학생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놀라서 그 자리에 못이 박히고 말았다. 입만 열면 욕설이 난무하는 집단 속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바보나 멍청이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흥내를 내며 학생들 편에 설 수도 없었다.
 (라) 어떤 집단이나 직업에도 특수한 말이 있다. 의사, 변호사, 공증인 등이들이 외부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쓰는 것은 동료 간의 의사소통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 확실히 구별을 짓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자가 특수 용어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말을 쓰면 그 분야 사람들은 화를 낸다. 배신당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 ① (다) - (가) - (나) - (라) ② (다) - (가) - (라) - (나)
- ③ (라) - (나) - (가) - (다) ④ (라) - (나) - (다) - (가)

13. [정답] ②

[단락의 순서] 난도 중

맨 먼저 욕을 하는 것이 어른 세계에 대한 반항이며, 벗어나고 싶다는 표현임을 밝혔다. 이러한 주장의 예시로 1968년 이탈리아 학생 운동에서 폭언을 내뿜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음을 (다) 글이 밝히고 있어 바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다)의 글을 이어서 (가) 글은 그러한 폭언이 자신들과 기성세대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 짓는 행동 양식이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라)에서 독자적인 말, 즉 특수한 말이 타 분야와 확실히 구별 짓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음을 밝혔다. (나)에서는 ‘욕’이 특수 용어가 아니며, 특수 용어와 구분지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문 14. ‘고공’이 조정의 신하를 비유한다고 볼 때,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의 옷 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고공(雇工)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이르리라
㉠ **처음의 한어버이** 살림살이 하려 할 때
인심(仁心)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田畓)을 기경(起耕)하니
올벼논 텃밭이 ㉡ **여드레 같이**로다
자손(子孫)에 전계(傳繼)하여 대대(代代)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이 아주 없어
밥 사발 크나 작으나 동웃이 좋고 굶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 **호수(戶首)**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것 하는가
너희들 일 아니하고 시절(時節)조차 사나워
가뜩이나 내 세간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엇그제 ㉣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간을 어찌하여 일으키려느냐
김가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 먹으려무나
- 허전, 「고공가(雇工歌)」 -

- ① ㉠: 태조 이성계 ② ㉡: 조선 팔도
- ③ ㉢: 임금 ④ ㉣: 왜적

14. [정답] ③
[고전시가] 난도 상
이 작품은 신하를 머슴에 빗대어 신하들의 반목으로 인해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있는 조선시대의 가사 작품이다.
* ‘호수(戶首)’는 땅 여덟 결(結)을 한 단위로 하여 공부(貢賦)를 바치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우두머리’ 정도로 번역될 수는 있어도 ‘임금’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표현이다.

집의 옷과 밥을 제쳐 놓고 이집 저집 빌어먹는 저 머슴(조정 신하)아,
우리 집 소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말하리라.
㉠ **조부모님(조선을 건국하신 이성계)**께서 살림살이 하려 하실 때,
어진 마음을 많이 쓰시니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서
풀을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을 일으키니,
올벼논 텃밭이 ㉡ **여드레 동안 같 만한 넓이(조선 팔도가 갖추어짐)**로구나.
자손에게 이어 전하여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머슴들도 부지런하고 검소하였다.
저희마다 농사를 지어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았는데,
요즘 머슴들은 어찌하여 사려분별도 전혀 없어,
밥그릇이 크나 작으나, 겨울옷(동웃:남자가 입는 저고리)이 좋거나 나쁘거나,
마음을 다투는 듯 ㉢ **호수(戶首, 5호의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을 꺼려서 반목(反目)만을 일삼느냐?
너희들이 일을 안 하고 시절조차 사나워(흉년조차 들어서),
가뜩이나 내 살림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엇그제 ㉣ **왜적들**에게 약탈되어 가산이 탕진되니,
집은 모두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네.
크나큰 세간을 어찌하여 일으키려는가?
김가와 이가 머슴들아, 새 마음을 먹으려무나.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 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벽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 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켜기었다. —
앞집 마마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한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띠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거르렁거르렁하였다.
... (중략) ...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루 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이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뺨뺨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었다. 문득 김 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테 부벼대며 중얼거렸다.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
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 현진건, 「운수 좋은 날」 -

- ①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이 나타나 있다.
- ② 비극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 ③ 객관적인 서술 태도로 인물의 행동만을 그리고 있다.
- ④ 행동과 불안감이 교차되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15. [정답] ③
[현대소설] 난도 중
객관적인 서술 태도라는 것은 관찰자 시점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세밀하게 포착하고 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와 같은 표현이 단적으로 답이 ③임을 알려주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아내가 나가지 말라는 표현은 작품의 결말이 비극으로 끝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 구실을 하고 있다.
② 아내를 위해 사 온 설령탕을 죽은 아내에게 먹여도 못하는 것은 비극적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④ 장사가 잘 되는 상황과 아내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긴장감은 조성된다.

문 16.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 -

- ① 죽음에 대해 달관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4음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미련도 집착도 없는 무욕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독백적인 어조로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다.

16. [정답] ②
[현대시 감상] 난도 하
3음보의 반복과 변조를 통한 리듬이 형성되고 있다. 4음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답 피하기>
① 죽은 후 현실의 삶이 소풍과 같이 아름다웠다고 말함으로써, 죽음에 대해 달관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③ 현실의 삶을 이슬과 같이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세계로 표현하여, 미련도 집착도 없는 무욕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④ 혼잣말로 말하는 어조를 보여준다.

문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文學教育論에 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반면, 이를 저해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그 같은 움직임은 주로 文學教育이 강화되면 國語科教育이 陳腐한 敎訓을 앞세운 道德主義 修身教科로 轉落될지 모른다거나 혹은 文學 少年 少女의 感傷癖을 만연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國語科를 언어생활의 능력 향상에만 묶어 두려는 견해다. 이들의 주장인즉, “文學活動은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言語活動 중의 한 類型에 불과하며, 文學作品이 國語科의 教材로 많이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어휘량이 많고 문장 표현의 양상이 다채롭다는 조건뿐이다. 文學이 國語教育의 核心은 될 수 없다. 國語教育은 어디까지나 言語教育이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을 다루면서 왜 言語技能의 形式陶冶에만 그치고 그 본질적 가치는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명분이 선명치 않다. 이것은 분명히 언어의 본질을 用具的, 提報的인 것으로만 보고 感化的인 것을 무시하려는 태도에서 유래한다.

- ① 문학을 언어활동의 도구로만 보려는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도덕주의를 중시하는 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③ 문학교육은 국어교육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 ④ 국어교육은 언어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17. [정답] ①

[독해-내용 파악] 난도 중

한자들이 제시되어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다. 필자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國語科를 언어생활의 능력 향상에만 묶어 두려는 견해다.”라고 하면서 문학이 언어활동의 도구로만 보려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사람들이 “文學教育이 강화되면 國語科教育이 陳腐한 敎訓을 앞세운 道德主義 修身教科로 轉落될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런 도덕주의적인 측면을 넘어서 문학의 감화적 기능을 중요하게 밝히고 있다.
- ③ 문학교육이 핵심이 됨을 논하고 있다.
- ④ 국어교육이 언어교육이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문 18. ㉠ ~ ㉣의 문장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아이의 학교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 **아침부터 흐린 게 비가 올런지 몰라 우산을 미리 챙겨 나갔다.** ㉡ **길을 나서자 갑자기 곧 해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 **시장 입구에는 옛된 소녀들이 우산을 들고 왈칵이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고 있었다.** ㉣ **소녀들의 모습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던 기억이 두루뭉술하게 떠올랐다.**

- ① ㉠의 ‘올런지’는 표기법에 맞게 ‘올른지’로 고친다.
- ② ㉡의 ‘해님’은 표기법에 맞게 ‘햇님’으로 고친다.
- ③ ㉢의 ‘옛된’은 표준어에 맞게 ‘옛뎌’으로 고친다.
- ④ ㉣의 ‘두루뭉술하게’는 의미상 자연스럽게 ‘어렵풋이’로 고친다.

18. [정답] ④

[퇴교-한글맞춤법] 난도 하

기억이므로 ‘어렵풋이’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 두루뭉술하다: 1. 모나거나 튀지 않고 둥그스름하다. 2. 말이나 행동 따위가 철저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다.
- * 어렵풋하다: 1. 기억이나 생각 따위가 뚜렷하지 아니하고 흐릿하다. 2. 물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흐릿하다. 3.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지 아니하고 희미하다.

<오답 피하기>

- ① ㉠ ‘올는지’라고 표기해야 한다.
- ② ㉡ ‘해님’이 표기법에 맞다.
- ③ ㉢ ‘옛뎌’이 맞는 표기이다.

문 19.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나 혹은 이타적이나 하는 이분법적 질문은 흑백 논리를 지양하고 (㉠)을 강조하는 오늘날에는 그저 지적 호사자들의 관심이나 끝 법한 낡은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인간에게 내재된 본성 같은 게 실제로 있거나 한 것인지 근본적인 (㉡)을/를 품어볼 수도 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생각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여겨 왔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대한 답변도 대체로 철학이나 종교의 영역이 맡아 왔다. 그 가운데에는 지혜의 원천으로서 인류의 삶에 훌륭한 (㉢)이/가 되어온 것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인간 중심적 사고에 (㉣)되었다는 근원적 한계를 갖는다.

- | | | | |
|-------|----|----|----|
| ㉠ | ㉡ | ㉢ | ㉣ |
| ① 다원성 | 의문 | 전범 | 착종 |
| ② 다양성 | 회의 | 지침 | 고착 |
| ③ 중층성 | 질문 | 모범 | 연루 |
| ④ 융합성 | 반문 | 통찰 | 편향 |

19. [정답] ②

[어휘론-문맥에 맞는 어휘] 난도 중

문맥상 ㉠에는 이분법적 논리와 반대의 뜻을 갖는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다양성’이 자연스럽다.

㉡에는 근본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을 뜻하는 ‘회의(懷疑)’가 자연스럽고, 인류의 삶에 훌륭한 가르침 곧 ‘지침(指針)’이 ㉢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지막으로 ㉣에는 모두 인간 중심적 사고에 박혀 있음, 곧 고착(固着)이 들어가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문 20.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페니실린은 약품으로 정제된 이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세균과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생제 사용이 잦아지자 세균들이 내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항생제는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 세균만 골라 죽이는 아주 유용한 물질인데, 이 물질을 이겨내는 세균들이 계속 등장했다. 플레밍 또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페니실린에 내성인 세균이 등장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현실화되었다. 페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구균이 곧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여 감염증을 치료하려는 인류와, 항생제 내성을 획득하여 생존하려는 세균 간의 전쟁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세균은 인류가 개발한 항생제에 내성을 갖추어 맞서고, 인류는 내성을 가진 세균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항생제를 만들어 반격을 하는 식이다.

이러하면 페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구균은 메티실린 체제가 개발되면서 치료의 길이 열렸다. 메티실린은 포도상구균을 물리치며 맹활약했지만 세균도 가만있지는 않았다. 메티실린의 효과가 듣지 않는 강력한 세균들이 등장했고, 이에 인류는 반코마이신을 개발해 탈출구를 열었다. 이들 치료제로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그람 음성 세균은 카바페넴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최강의 항생제인 카바페넴에 내성을 획득한 다제 내성균(슈퍼 박테리아)도 등장했다.

- ① 인류는 더 강력한 세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 ② 항생제 사용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 ③ 인류는 다제 내성균을 치료할 항생제를 개발할 것이다.
- ④ 앞으로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세균이 나타날 것이다.

20. [정답] ③

[독해-내용의 추리] 난도 중

지금까지의 역사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들이 계속 등장했고,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항생제가 나타났다고 했다. 이를 통해 최강의 항생제인 카바페넴에 내성을 획득한 다제 내성균이 등장했으니 그에 대한 항생제도 또 개발될 것임을 추리할 수 있다.